


경제관계장관회의

25-11-2
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

2025. 4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I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방향	1
II. 그간 추진 실적	2
1. 산지유통 단계	2
2. 도매유통 단계	2
3. 소매유통 단계	3
III. 향후 계획	4

I.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방향

- ◇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, 생산자·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
- ◇ 이에 現 정부 출범 이후 「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(’22.12.29)」 및 「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(’24.5.1)」 수립·이행 중
 -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,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등 유통비용 절감 추진

□ 농산물 유통 단계(산지-도매-소매)별 효율성을 제고하고,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자·소비자 편익 제고

❶ (산지) 농가 개별 출하 중심으로 높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취급 물량 규모화, 인력 감소 등이 가능한 스마트 APC 구축 추진

-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 현대화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 규모화 및 위생·안전성 제고

❷ (도매)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’ 신규 개설(’23.11월) 및 활성화

- 기존 시장 내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및 거래 정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공공성·효율성 제고

❸ (소매) 온라인·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및 온라인 직거래 기반 조성

- 다품목·소량 거래 확산 등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비지 유통업체 간 공동구매 및 벌크유통 확산

II. 그간 추진 실적

1 산지유통 단계

① (농산물) 품목별 주산지 **스마트 APC* 30개소 구축** 완료

* 스마트 APC 구축 계획(누적) : ('24) 30개소 → ('25) 60 → ('26) 100

※ **스마트 APC 구축 효과('23년)**

- 평균 취급 물량 확대(24톤/일 → 38), 선별·포장 인력 감소(평균 16명 → 9) 등 출하 단위 규모화를 통해 **출하 단계 물류비용 5% 절감** 효과 확인

② (수산물) **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**('24.10월~), FPC·FDC 추가 구축 추진

* 現 FPC 13개소, FDC 2개소 건립 + FPC 2개소, FDC 1개소 추가 구축

※ **산지거점유통센터(FPC),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효과**

- 수산물 유통 **위생·안전 제고** 및 **유통비용 절감** 효과(고등어, △6.9%) 확인

③ (물류기기)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산지 출하 비용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파레트 등 **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구조 개편**

- **이용가격 공시** 및 공급업체 공모, 지방비 매칭 및 보조율 하향(국비 40% → 국비 10/지방비 20)을 통한 **지원 물량 확대**(수요량의 30% → 전체)

* ('24) 보조지원(30% 물량, 2,970원/파레트) + 개별이용(70% 물량, 4,500~6,500) → ('25) 총 사용 물량에 대해 정부 지원하고, 이용단가는 3,080원/파레트로 고정

※ **물류기기 사업구조 개편 기대효과**

- 산지 조직별 연간 **물류비용 평균 46.5% 절감**(40,346천원/파레트 1만개 → 21,560) 기대

2 도매유통 단계

① (경로 간 경쟁 촉진) 농수산물 **온라인도매시장** 출범 첫 해 거래 목표 5천억 원 초과 달성(6,737억 원) 등 **새로운 도매유통 경로**로 안착

- 수산물 거래 개시('24.7월),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(年 거래액 50억원 → 20) 등 제도개선, 우수 특화상품 발굴(13종) 등 **상품 구색 강화**

※ **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효과 분석('24년)**

- 물류 최적화, 경쟁 촉진 등을 통해 **농가수취가격 3.6%↑, 유통비용률 7.5%p↓**

② (시장 내 경쟁체계 구축)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제 도입 등 **농안법 개정안*** 발의('24년)

* 상임위 의원 6명 대표발의(박덕흠·김선교·임미애·윤준병·문대림·조경태 의원)

- 법인 평가 체계도 ①상대평가 강화, ②모든 평가지표 계량화, ③공공성 평가지표 확대 등 공공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

③ (가격변동성 완화) **전자송품장 활용 시장·품목 확대***, 사전 시장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한 출하예측시스템 구축 추진

* '23년 8월 가락시장 시범 도입 이후 (시장) 1개 → 13, (대상 품목) 6개 → 전 품목

※ **전자송품장 기반 입출차 차량 관제 효과('24년, 가락시장)**

- 입차 스케줄링 도입 후 운송 차량 **일(日) 대기시간 2시간 감소**(9시간 → 7)

3 소매유통 단계

① (직거래 활성화) 농업인·유통인 대상 온라인 마케터 육성(1,000명),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구축(85개소) 등 소매유통 경쟁 촉진

-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설치 신규 지원 추진(30개소)

※ **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 효과(농협)**

- 오프라인 유통 대비 **농가수취가격 8.4%↑**, **소비자 편익 6.9%↑**

② (구매 방식·물류 다양화) 온라인도매시장 내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('24.12월), 제3자 물류*를 활용한 구색맞춤 등 물류서비스 제공('25~)

* (현재) 판매자가 구매자별로 소품목·대량 배송, 다품목·소량 선호 충족에 한계 → (개선) 전문 물류업체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확보하고 구색을 갖춰 소비지로 공급

③ (유통 관행 개선)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포장·운송 비용 절감을 위한 무포장(벌크) 유통* 확산('24.5~25.3, 2,076톤)

* 참외(888톤), 감귤류(335), 사과(279), 단감(233), 천도복숭아(102) 등 총 10개 품목

※ **무포장 유통 거래 효과(하나로마트, 사과 기준)**

- 포장재 등 상품화 비용 및 물류비 등 총 **21백만원(75원/kg) 절감** 추정

Ⅲ. 향후 계획

- **(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)** 주요 품목(5대 채소·6대 과수·계란) 중심 **우수 사례 발굴** 및 **성과 확산**에 정책 역량 집중(**‘25년 거래 목표 1조 원**)

* 제도개선 과제 발굴·해소를 위해 ‘민·관 합동 지원반’ 구성·운영(‘25.3월~)

- 산지 출하 조직, 기존 도매시장 유통 주체, 외식·가공업체 등 **핵심 거래 주체별 맞춤형 지원*** 추진

* 산지 소비지 직배송 물류비 지원, 외식·가공업체 대상 맞춤형 거래 매칭 등

- 유통비용 절감, 물류 효율성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새로운 유형의 거래*** 방식 발굴·확산

* (예시) 산지-소비지 간 장기 예약거래, 발주거래, 역경매 등

- **(농산물 물류 개선)**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, 기존 시장을 통합 **거점 물류 기지화***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

*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 기반 권역별 통합 물류 거점에서 구색맞춤, 통합배송, 단기 저장, 소분·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 제공

- 전문기관(농협물류) 선정·운행을 통한 산지 물류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(상반기) 및 P박스 표준화 등 물류기기 이용개선 추진

- **(APC 운영 고도화)** ‘26년 **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**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운영 **전문 인력 양성**을 위한 교육·컨설팅* 제공

* aT 유통교육원 및 농협 교육과정으로 스마트 APC 실무 역량 강화 과정 신설, 설비·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“스마트 APC 산지지원단” 운영 등

- **(제도 정비)** 온라인도매시장 근거 **법률***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**농안법 개정 후속조치**** 추진

* 총 4건(김현정·김도읍·정희용·임미애 의원 대표발의) 상임위 계류 중

**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, 신규법인 공모 절차 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